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10/27/2024

맹자 공손추에 ‘밭묘조장(拔苗助長)’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에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논에 모를 심어놓고 벼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매일 아침 논으로 달려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논들을 둘러보니 자기 벼가 남들의 벼보다 더디게 자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아침 일찍 논으로 나간 농부는 벼포기마다 벼의 순(荀)을 모조리 뽑아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벼의 키가 한결 커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시간을 들여 농부는 땀을 흘리며 벼를 하나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농부는 아들에게 그 일을 자랑삼아 말했지만 놀란 아들은 아버지를 탓하며 서둘러 논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벼들은 이미 싹이 뽑혀 말라죽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급히 키우려고 무리하게 힘을 들이다 오히려 망친다는 경계를 나타내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라남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피흘림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우리의 현실 생활은 여전히 모나고 메말라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갈히 다듬어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돌아보면 오늘도 나는 욕심과 자기애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확인할 때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에 죄송하여 반복적인 회개를 하고 나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기계로 똑딱 만들어지는 완제품처럼 금세 완성될 수 없습니다. 배 속의 아이가 자라는 동안 산모가 고통을 겪듯, 논밭에 뿌린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듯, 우리의 영적 성장도, 예수님의 그 완전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데에는, 인내와 좌절, 땀과 눈물이 녹아들어 간 세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가진 ‘나’의 사랑이 작고 미약하다고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사랑을 일부러 키운다고 무리하여 밭묘조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허락해 주신 오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주어진 삶가운데 내게 허락된 사랑과 시간을 나에게 주신 영혼들과 나누며,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침내 열매 맺는 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차곡 차곡 쌓여갈수록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낱알을 낸다" (막 4:28)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추수의 때를 희망하며 알찬 낱알로 오늘도 채움 받기를 원합니다.